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5.9.19.(목) 오후 2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구종상 위원장, 최은수 부위원장, 김광석, 전계순, 김병수

안서연, 백명희, 박세진, 임태순 위원 9인(이경화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부장, 시청자센터 부장

■ 주요 내용

▲ 구종상 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습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 25년 8월 26일(화) 뉴스프라임, '시각장애인 동반자 안내견...없는 것처럼 해주세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동반 관계를 소개해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안내견이 태어나 사회화·훈련·배치·은퇴에 이르는 과정을 차례로 보여줘 안내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안내견 훈련사와 시각장애인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발언을 담아 현장의 전문성과 실제적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안내견과 동행 시 허락 없는 촬영 금지, 불필요한 접촉 자제,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 태도의 중요성을 알려 생활 속 실천 지침을 제시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쉬웠던 점은 출입 거부 사례나 안내견 방해 사례를 짚어주면 왜 "없는 것처럼 대해달라"는 요청이 절실한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안내견 훈련 비용, 국가 지원 현황, 훈련사 양성 문제 등 정책적 과제를 병행 소개했다면 단순 홍보를 넘어 공익 보도로서 무게감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보도는 안내견 제도를 알리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태도와 배려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와 의미가 큼니다. 다만, 통계·정책적 맥락 보완,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 강화, 현장 체험형 보도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시청자에게 더 깊은 울림과 설득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콘텐츠 안에서 설명을 잘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여겨졌고 다만,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짧은 리포트 형태여서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디지털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프리하게 필요하고 길게 좀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은수 부위원장

- 연합뉴스TV는 특보가 있을 때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전승절과 김정은의 방중 일정을 입체적으로 잘 보도. 이동과정에서 나온 "장기이식으로 불멸" 녹취를 포착해서 보도한

것을 비롯해 북중회담, 북러회담, 노동신문 보도내용, 김주애와 김여정 동행, 생체정보 누출 우려 의자 닦기, 회의장 온도조절 실랑이 등 세세한 내용까지 클로즈업 보도를 통해 관심사를 잘 반영하였습니다.

- [현장의 재구성] 기획보도 돋보여, 강릉 가뭄 물 절약 동참...내용을 다양한 영상과 뉴스 정보를 결합해서 실감나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자막과 인터뷰 방송.정청래 vs 장동혁 강대강 대치...서로의 워딩과 중요 장면을 동원 현장 상황을 실감있게 보도. 이 같은 [현장의 재구성] 코너를 특화시켜서 다른 방송국과 차별화하면 좋을 듯 보입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시진핑, 푸틴 전승절 행사가 엄청난 이벤트였는데 저희도 이 시기에 특보체제로 한 3일 정도 뉴스를 운영했고요.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저희가 이 보도가 좀 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차별화가 됐었냐면 저희가 전승절 리셉션에 대한민국 언론 중에 유일하게 저희만 리셉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취재기자인 베이징 특파원과 카메라기자 둘이 들어가서 그 영상을 단독 촬영했어요. 그 안에 있는 리셉션 영상들이 일부 풀영상 빼고 외신에서 들어온 영상 빼고는 저희가 직접 찍은 영상으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또 김정은이 중국을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들어가는 그 열차, 그 영상도 저희가 그걸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 '현장의 재구성'은 일주일에 세 번은 만듭니다. 저희가 만드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전날 오후에 기획을 해서 당일, 다음 날, 하루 종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만들기가 힘든데 이게 정치 사안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하잖아요. 만드는 PD들이 다루는 거를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가벼운 걸로 많이 만들다가 제가 그래도 우리가 정치 사안을 많이 다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짤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가급적 힘들더라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현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말 그대로 바이럴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이경화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서면 제출)

- 시정한 '기관사실 CCTV 없어'(8.22) 청도 사고 사건. '단독보도'라는 표시가 눈에 시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코레일노사는 2015년 기관사실 CCTV 설치를 합의하여 촬영장치 의무화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도 철도 사고 경위를 파헤친 것입니다. 사고 원인으로 CCTV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안전강화 설치 의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미설치가 가능했던 것은 시행령 부칙에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조항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부재로 우리 사회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사고는 법적 장치의 모순을 악용한 사고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유익한 기사라고 판단합니다.

- 용인 오피스텔 30대 여성 살해범(8.22) 사건, 본 사건을 접하면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여성피해자의 현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는 5월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보복범죄로 살해 당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위험을 느낀 여성의 신고에 대한 경찰 처리방식에 관

한 것입니다. 늘 혼자 사는 여성/어르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안심도우미 등)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신고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성의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에 대한 미흡이 문제인지, 경찰행정제도의 부재 탓인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보도이길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신속하게 국회의원실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보도한 기사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 기사에 있어서는 제도적 사각시대, 법적 미비점 등을 파악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관심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경찰의 대응에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논란이 많은데 추후 기획 형태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석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391회 : 조국이 당신을 모십니다 120년 만의 귀환,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독립조국을 보지 못하고 낯선 해외에서 숨진 애국지사6인에 대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망하고 그 분들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하는 과정을 약 27분간 보여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독립지사들이 해외에서 자신의 가정과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새김으로써 현재의 대한민국이 많은 애국지사들의 피와땀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약 203여 위의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외국에서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기에 연합뉴스TV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가짜 신고에 하루 평균 14번 출동...공권력 낭비에 안 보이는 피해까지.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혐오와 증오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폭발물 협박의 증가로 인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치안 문제도 발생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서도 언급했지만, 폭발물 협박 및 허위 신고에 대하여 외국의 대처 사례 언급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도 적용 여부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의적절한 보도로 사료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의 허위신고가 5,400여건이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기존의 법 적용은 미흡하여, 최근 법적 처벌이 강화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였으나, 실제 판결에서 처벌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적용이 미비하다는 보도는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의 폭발물 협박과 허위 신고의 억제 방안으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국민의견수렴과 국회가 입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속보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가지고 연합뉴스TV 스페셜 PD들이 만드는 제작물로 만든 다큐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렇게 내용을 쫓았는데 일제강점시대 때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미국에 건너와서 광복 해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독립운동 하셨던 지사였습니다. 그동안 세크라멘토의 무덤에 있던 그 유해를 이번에 우리 국가보훈부가 가져오는 그런 이제 뜻깊은 행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거운 주제인데 현장에 직접 PD가 가서 촬영을 해서 굉장히 어떤 의미 있게 좀 풀어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콘텐츠를 좀 깊게 봤는데 또 위원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뉴스 프리즘은 기자들이 출연을 해서 한 세 꼭지 정도로 만드는 조금 심도 있게 만드는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많고 그것들을 좀 모아서 뉴스를 만든 거고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공권력 낭비가 심하다는 게 사실은 좀 놀라울 만한 일인데 마지막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회가 입법을 이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에 저희가 더 추가적인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순 위원

KT 소액결제 피해 부천에서도...범행 수법·주체 오리무중, 최근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 이어 부천에서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는 대략 74건. 피해 금액은 4천 580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가입자로, KT의 전산망을 통하는 알뜰폰 요금제를 이용 중인 이들도 일부 있으며 소액결제를 통해 문화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새벽 시간에 결제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특히 광명시에서는 특정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은 악성 링크를 접속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특정 지역과 시간대에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인 만큼 경찰은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상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범행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KT 현장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T 이어 이번엔 KT까지 소액결제 침해사고 징후를 신고하고 파장이 커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규명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KT가 정작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으며 KT가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외에는 고객 안내를 하지 않고 있어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피해 인지조차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불안한 소비자들이 KT로 옮겼는데 미처 피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에게 대한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KT에 신고한 사항에 한해서만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는 금액을 납부하고 나서야 이를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통신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대응만 있을뿐~ 이번 사고의 정확한 실태, 해킹 가능성, 대응 경과 등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연합뉴스TV에서 전반적으로 기사를 정리하여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한동안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결국은 이 사안이 파장이 커지다 보니까 KT대표가 대고객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사과까지 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 기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초기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 난 다음에 대응이 부적절하고 느리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보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계속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종적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계

속 관련 보도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수 위원

- [연합뉴스TV 스페셜] 392회 : 별을 쓰다 내일은 슈퍼스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달성, 2021년 배우 윤여정씨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2022년 배우 이정재씨의 애미상 남우주연상 수상, BTS·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들의 폭발적 인기 등으로 이제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이 K-컬처라는 이름으로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 제66회 토니상에서 작품상을 비롯 무려 6개 부문을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하며 이제는 K-컬처의 위상이 뮤지컬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뮤지컬 시장은 영화나 드라마, 케이팝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2의 토니상 수상 국내 창작 뮤지컬 작품이 나오게 하려면 뮤지컬 제작 지원, 세제 혜택, 뮤지컬 신인배우 발굴 등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프로그램에서 잘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구성도 넘버(뮤지컬 안에서 배우들이 부르는 하나의 노래), 스탠딩오베이션(공연이 인상 깊었을 때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 치는 것), 커튼콜(공연이 끝나고 배우들이 무대에 다시 나와 관객에게 인사) 등 뮤지컬 용어에 맞게 구성하여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최한 제1회 연합뉴스TV 뮤지컬 콘쿠르는 국내 뮤지컬 작품들을 빛낼 미래의 뮤지컬 배우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주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제2회 제3회 대회를 통해 K-뮤지컬을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인 배우들을 계속 발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중대재해처벌법 3년...처벌 강화에도 줄지 않는 산재,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지났지만 OECD 회원국 중 사망률 최고 수준의 산재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산재사고에 대한 실행처벌은 단 1건에 불과해 여전히 산재사고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사후처방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산재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 매출의 3% 과징금 부과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반복 사망시 등록말소 및 입찰제한 등 강력 조치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정부방침에 공감하면서도 먼저 최저가 입찰제, 공사기간 단축 압박, 저출산에 따른 숙련공 감소 등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싱가포르는 안전기술에 연 2천억원 -1조원을 투입하여 근로자 10만명 당 산재사망자수를 2004년 4.9명에서 목표치인 2.5명 보다 낮은 2023년 기준 0.99명으로 축소하여 지금은 선진국 수준의 산업안전국가로 거듭난 성공사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차원의 투자없이 싱가포르와 같은 수준의 산재예방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산업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정부도 처벌 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기업들이 자발적 산업재해예방에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예방

지원예산 대폭 확대, 위험성 평가 안정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공공조달 계약시 무사고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산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목소리,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여 정부의 정책 입안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저희 PD가 제작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통해서 아까 오찬 식사하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뉴스TV가 처음으로 올해 1회 뮤지컬 콩쿠르를 개최를 했습니다. 박칼린 배우를 선정위원장으로 모셔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대회 첫 대회를 열었고요. 저희가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문화 사업 쪽에 언론이 건전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첫 행사가 이번에 열렸고 그 과정을 저희가 연합뉴스TV 스페셜 프로그램을 통한 콘텐츠로 만들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문화와 관련 일들을 콘텐츠로 만들었는데 좋게 봐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 뉴스 프리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다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가장 중요한 보도의 하나의 테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물론 그 보도를 단발적으로 리포트나 단신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뉴스프리즘이나 이런 심층적인 보도를 통해서 한 번씩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위원회때 제가 한번 이것 다뤄보겠다고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서연 위원

- [다다를 이야기] "8억짜리 새 집...전체 하자12만건" 준공일 맞추느라 중대재해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의2,600여 세대 오피스텔 하자 문제에 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전체 하자12만 건'이라는 수치는 일반적인 시청자에게는 그 심각성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아파트 하자 발생 건수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제시했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준공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추락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통상적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와 비교하여 이번 사안의 비정상적인 측면을 부각했다면, 보도의 설득력이 한층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공사 측이 서면 답변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시되었다면 언론의 역할이 더욱 돋보였을 것입니다.

- [정신채린! 삶의현장] "우리 개 입에 다른 개 털이..." 금쪽견'환골탈태' 대작전, 반려견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려견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초반, 실제 사고 사례를 담은 보도 영상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점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흥미 위주가 아닌,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의도를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특히,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법을 제시하고 실용적인 팁을 알려준 부분은 유익했습니다.

- [현장의재구성] 한국기업 뒤편 美이민단속'공포'...동맹·투자, 다 필요없다?!, 미국 이민 당국

의 한국 기업 투자 현장 급습 사태를 다룬 '현장의 재구성' 보도는 미국의 기관 홈페이지 관련자의 SNS, 워싱턴 영사, 외교부장관 등의 인터뷰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짧은 콘텐츠에서도 동맹국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규모 투자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미국의 행태를 잘 정리하여 보여준 것 같습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 '다다를 이야기' 준공일 맞춤과 중대재해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도 이번에 지적하신 걸 보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도 좀 비교를 했으면 조금 더 좀 쉽게 와닿을 수는 있었겠다 하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다다를 이야기'라는 이 코너가 TV코너는 아니고 디지털로만 나가는 말랑말랑한 좀 그런 코너인데 가급적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사람들의 육성을 많이 들려주고 현장을 보여주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아이টে미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현장성 있는 걸 살리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신채린! 삶의현장'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사를 한번 현장에 보내서 만들어 봤습니다.
- '현장의 재구성'이라는 코너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3건 정도 만들어서 TV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터진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를 빨리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코너인데요. 콘텐츠가 즉각성이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백명희 위원

- 2025.9.8. 오늘뉴스 > 이 시각 핫뉴스, 질문에 말 없이 응시 '젠지 스테어'...Z세대 소통방식 질문에 대답없이 무표정으로 응시한다는 Z세대의 '젠지 스테어'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신지요? 젠지 스테어는 Z세대를 뜻하는 'Gen Z'와 '응시하다'라는 뜻의 'Stare'를 합친 신조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Z세대 직원들이 고객이나 동료들 뺨히 쳐다보며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공감하거나 Z세대를 비판하는 글이 국내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며 순식간에 Z세대의 사회성 논란을 상징하는 '밈'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스마트폰을 끼고 산 여파라고 해석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형성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언급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 없이 뺨히 쳐다보는 것이 과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이 누군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뺨히 쳐다보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 집에서 지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 2025.9.9. 뉴스.시사 > 뉴스리뷰, 이 대통령 "노조 자녀 특채, 불공정의 대명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 대책을 공개토론 했습니다. 그 중에 노조 자녀 특채 논란에 대해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보도를 보았다며 이것은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노조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노동계에서는 자신들만의 밥그릇을 챙기는 일에 대해 경계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노동계의 고용세습 같은 낡은 단협 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여 공정 경쟁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도 관련 기사를 한 번씩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지흥 보도본부장

- '이 시각 핫뉴스' 젠지 스테어 이 부분 저도 재미있게 이 뉴스를 좀 봤는데요. 요즘 어떤 세대의 어떤 흐름이랄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인데 전문가의 스마트폰을 계속 끼고 사는 여파여서 이런 게 일반화됐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수궁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전문가의 진짜 정확히 어떻게 멘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 줬으면 더 친절한 기사가 될 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는 '이 시각 핫뉴스'라는 프로그램이 아침에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서 캐스터가 한 3건 정도 기사를 뽑아가고 간단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가는 기사여서 우리가 이걸 짚어줬으니까 한번 연합뉴스에 들어가서 기사를 봐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코너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기사에 대해서 좀 짧게 정보가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은 이런 형식의 코너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만들려다 보니까는 좀 짧게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던지는 그런 느낌의 코너입니다.

- 노조 자녀 특혜 논란 관련 기사는 최근에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더 이야기가 됐는데 공정과 관련된 문제는 언론에서 항상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이 관련된 사안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정부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의 채용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감시하겠습니다.

▲ 박세진 위원

[프리즘] 자신감 갖자 전세계 '혼문' 열렸다...신기록 질주하는 K컬처 2025-09-07

[프리즘] '루미·진우 데이트' 성지순례부터 뭉즈까지...케데헌 효과도 2025-09-07

[프리즘] 케데헌 경제 효과도 톡톡...1조원대 지식재산권은 소외 2025-09-07

연합뉴스TV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을 중심으로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체계적으로 조망한 보도를 내놓은 점인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케데헌의 글로벌 흥행을 시작으로 K-pop, K-관광, K-푸드, K-뷰티 등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취재해 콘텐츠 한류의 확장성에 대해 시의성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보도에서는 케데헌의 성공 이면에 자리한 K-지식재산권(IP)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점이 주목됩니다. 막대한 수익과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해외 제작사(소니 픽처스)와 유통 플랫폼(넷플릭스)에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콘텐츠 원작국인 한국이 글로벌 IP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다뤘는데 이는 학계와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판적 보도가 K-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과 산업 구조 개선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정부가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을 기치로 K-컬처 시장 300조 원, 연관 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공언한 상황에서, 학계 및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K-콘텐츠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가 '국내 창작자의 IP 권리 강화', '플랫폼 주도권 확보', 'K-콘텐츠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가 주길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K컬처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뜨거워지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도 박진영 가수, 지금 제작자인 박진영 씨를 장관급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임명했는데요. 아마도 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도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뉴스 프리즘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앞으로 K컬처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기사를 제작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태순 위원

9월 3일 뉴스 「스마트폰 NFC 소액결제로...30억 빼돌린 사기단 검거, 김선홍 기자의 이번 보도는 NFC 결제의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보안 취약성과 신종 금융사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시청자에게 큰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유령 가맹점을 통한 허위 매출, 해외 신용카드와 스미싱을 결합한 범행 방식, 그리고 수만 건에 달하는 소액 결제를 통해 피해자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한 부분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해외 카드 결제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범행 수법을 짚으면서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 점은 언론 보도의 공익적 역할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책과 명의 대여자까지 검거 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달해 사건의 심각성과 파급력을 시청자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가 신종 금융사기의 진화 양상을 알리고, 동시에 이용자들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보도가 금융 범죄의 위험을 예방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신지홍 보도본부장

요즘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보도해 나가겠습니다.

▲ 구종상 위원장

혹시 부족하거나 빠뜨린 게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및 회의 준비해주신 연합뉴스TV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9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끝)